

# Dubai유, 2일연속 하락 39.5달러

석유공사, 하루만에 1.20달러 하락 ... 지속적인 안정세 여부 불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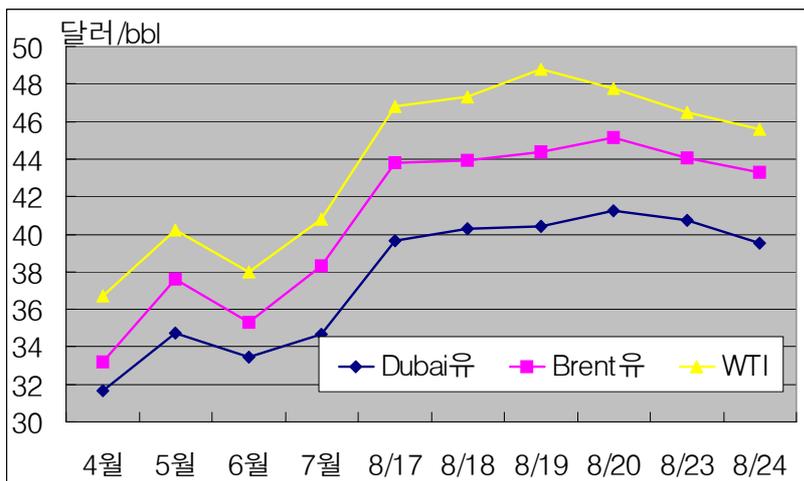
이라크 남부지역 수출 정상화와 미국 원유재고 증가 예상에 힘입어 국제유가가 2일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8월24일 현지에서 거래된 중동산 Dubai유는 전날보다 1.20달러 하락한 배럴당 39.52달러로 8월17일 39.65달러를 기록한 이후 1주일만에 다시 39달러대로 떨어졌다.

북해산 Brent유는 43.26달러로 전날보다 0.77달러 하락했으며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도 0.90달러 내린 45.61달러로 거래가 마감됐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WTI 10월물과 런던 국제석유거래소(IPE)의 Brent유는 전날보다 0.84달러, 0.71달러 떨어진 45.21달러, 42.32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국제유가 추이(2004)



국제유가는 이라크 남부지역 석유 수출이 하루 200만배럴로 정상화되고 북부지역 송유관 수송능력도 50% 정도 회복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미국 원유재고가 지난주보다 60만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것도 유가하락에 일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석유공사는 “국제유가 급등 요인이 됐던 이라크, 베네주엘라, 러시아 등 3개 지역의 상황 중 이라크 석유수출이 정상화된 것이 유가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8/26>